

편집국에서

최현수

편집국장

“시방 빛이 중한다...”

영화 속 유명해진 대사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지역의 ‘통합 의과대학’ 신설이 끝내 무산됐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정부가 제시한 ‘대학 통합 및 의대 설립 합의’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의대 소재지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6년간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의 좋은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결국 지역 사회와 대학 간 갈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하면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오는 2030년까지 의대정원 100명 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과 지역 사회가 굴러 들어온 복을 권여 차버렸다.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윤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닌, ‘생존’ 그 자체의 문제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수가 0.29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군지역 대부분이 응급·분만·소아 진료조차 제때 받기 힘든 ‘의료취약지’다. 실제로 병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타

기고

박경이

충장동 주민자치회장

“수리수리 마을수리, 얹!” 주문처럼 외우면 낡은 것이 새것처럼 되살아나고, 고장 난 것이 똑딱 고쳐질 것 같은 말이다. 하지만 이번 충장동의 주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오래된 물건을 고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의 관계까지 다시 잇자는 약속이다. 마을예술축제는 주민이 마을의 자원과 특색을 바탕으로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우리 마을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충장동은 광주의 중심 상권으로서 오랜 생활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특히 충장동이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충장로와 예술의거리, 한복·양복거리, 귀금속거리, 전자의거리에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과 기술

“빛이 중한다”…소지역주의에 막힌 ‘전남 통합의대’

지로 원정을 떠나고, 아이가 아파도 갈 소아과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처지다.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지역민들의 생명권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 절박하다는 얘기다. 전남은 1990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다. 30여년 동안 정치권과 의료계의 이런 저런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치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의대 유치 기대감이 높았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의대 설립이라는 큰 틀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양 대학은 대학본부, 의대, 대학병원 등의 핵심 인프라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만 거듭하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정치권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설득하며 수차례 나섰으나 순천(동부권)과 목포(서부권)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다. 지역의료 현실은 을 무시한채 ‘우리 지역, 우리 대학’으로 와야 된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으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의대 신설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는 교육부에 핵심사인인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한 ‘반쪽짜리’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통합의대는 무산됐고, 이제는 정부의 배려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 이달 중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시는 양 대학의 통합의대가 불발됐지만 의대 설립 방식 변경 등 대안을 찾아 정부를 설득해 의대 설립을 포

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 경북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통합해 만든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지원 계획을 제출해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국대가 의대 정원을 50명으로 제출해 전남광주에 50명 규모의 의대가 허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전남 국립의대의 운명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양 대학은 지난 2024년 대학 통합에 합의했지만, 이후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 합의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협상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단독 의대를 지정하든, 정원을 분산 배정하든, 갈라진 민심과 지역사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속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상생의 교두보가 마련된다. 의대 유치를 마치 자기 지역의 몫처럼 주장한 대학과 정치권, 행정기관, 시민사회 단체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공식 출범했다. 전남과 광주는 한뿌리다. 앞으로 지역내 풀어야한 각종 현안사업의 산적하다. 이번에 통합의대 유치를 놓고 불거진 구성원간 ‘지역 이기주의’는 통합 전남광주를 이끌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 전남광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물리적 결합’을 넘어 비전과 마음을 공유하는 ‘화합적 통합’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와 지역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통근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할 때다.

수리하는 마음, 다시 잇는 충장동

자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쌓여 있다. 올해 충장동 마을예술축제는 바로 이 마을의 자원에서 출발했다. 오는 9월 5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충장 수리수리 마을수리 축제’는 ‘다시 쓰고, 고쳐 쓰며 기록하는 마을’을 주제로 한다. 버리는 대신 고쳐 쓰고, 익숙해서 지나쳤던 마을의 가치와 기억을 다시 발견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대표 프로그램인 ‘명인명장 수선소’에서는 의류와 한복, 안경, 귀금속 등 충장동 명인·명장과 지역 상인들이 생활 속 물건을 직접 손보고 고친다. 낡은 물건에 다시 쓰임을 찾아주며, 충장동 상권이 쌓아온 기술과 신뢰를 전하는 자리다. 여기에 충장로 4~5가 청년상인과 친환경자원 순환센터도 함께 참여해 수선과 재사용의 의미를 더한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수선스러운 수다’에서는 상인과 명인들이 자신의 가게와 손님, 물건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래된 가게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시간이 함께 쌓여 있다는 사실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번 축제의 ‘수리’는 물건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을 활용해 사람과 사람, 골목과 골목을 연결하는 퍼포먼스와 주민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친 마음을 살피고 이웃과 다시 이어지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특히 어반스케치 주민동아리는 ‘충장동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마을의 모습을 스케치해 전시하며, 충장동의 기억과 변화를 기록하는 의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주민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난 3월부터 주민자치회와 상인회, 마을사랑재운영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축제를 준비해 왔다.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충장동만의 자원을 어떻게 살리고 주민과 상인이 어떻게 함께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자개발정 충장동’을 통해 모인 기금은 마을사업과 축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다시 마을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가기도 하다. ‘충장 수리수리 마을수리 축제’는 행정이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과 상인, 청년과 지역기관이 함께 만드는 마을의 축제다. 물건을 고치는 손길이 사람을 잇고, 사람을 잇는 마음이 다시 마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9월 5일 오후 2~5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관으로 열리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해 충장동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한다.

독자투고

생명 존중 문화,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

우리 사회의 자살 양상은 더욱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적 고립은 물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단절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SNS를 통한 정보 확산 역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특정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에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층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 중장년층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 문제, 노년층은 질병과 외로움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처럼 자살은 개인의 의지나 성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명 존중 문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동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상 속 실천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희망도 함께 커질 것이다. 이성현 완도경찰서 경비반보과 경사

사설

전남광주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칭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자치구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이 경이롭다. 이 제도의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건강식사, 노년 건강,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등 지역민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역현안들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해 왔다. 먼저 통합특별시는 취약계층에게 전남산 농수산물을 구성한 식사 꾸러미를 지원하는 ‘전남OK 행복밥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부금 2억원을 들여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성장기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영양 관리가 필요한 조손가정 등 600여 세대에 월 1회 식사 꾸러미를 정기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이를 가장 잘 활용한 모범 사례다. 기부금으로 1985년 개관한 독립예술영화관인 광주극장 활성화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중증 경증 발달장애청소년 E.T(East Tigers)아구단의 운영비 지원, 대인동과 계림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 관내 마을문제까지 이를 활용하려는 ‘주민주도형 마을현안 지정기부사업’ 모금까지 하고 있다. 기부금 활용사업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는 이사하는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1000원만 부담하는 ‘청년 전원 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조선대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한 노년 맛이를 돕는 돌봄과 여가용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한 ‘엘에이징’ 고향사랑기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광산구는 ‘이주 배경 청소년 문화 적응 프로젝트’와 ‘천원한끼 운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행 4년째에 접어든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자체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살피지 못했던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100세 이상 비율 전국 최고지만…

전남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인구 대비 전국 최다라고 한다. 인구 10만명 당 31.8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1위를 기록한데다 전국평균(17.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공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 자조사 집계 결과’에는 지역 장수노인의 현주소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100세 이상은 8604명인데 이는 2015년 3159명보다 5445명(172.4%)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17.3명으로 2.7배나 늘었다. 의학과 여러 생활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장수 노인은 203명으로 인원수는 경기(2052명), 서울(1268명), 경북(559명)에 이어 네 번째지만 인구 대비(10만명 당)로 보면 31.8명으로 전국 최고다. 제주(30.4명), 강원(28.6명)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광주지역은 20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4.5명 꼴이다. 전남 군 단위 지역 장수인구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고흥군은 인구 10만명당 91.8명으로 전국 1위 장수촌이 났고 함평군도 77.0명으로 전국 6위, 곡성군은 71.1명으로 8위에 올랐다. 전남 3개 군이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등재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남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저남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2025년 기준 2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1%로 전국 사·도 중 가장 먼저 20%대에 진입했다. 고흥군은 고령인구가 무려 47.2%나 된다. 보성군(44.9%), 함평군(42.7%), 구례군(41.3%), 곡성군(41.2%), 강진군(40.7%), 장흥군(40.4%) 등 6개 군도 40%가 넘어서고 있다. 전남은 2014년부터 UN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뜻하는 ‘초고령사회’가 됐고 광주도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 19%를 넘어서 조만간 여기에 들어선다. 이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의료·돌봄·주거 정책이 절실했다는 얘기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